대형마트 지하주차장서 여성고객 납치·강도

"대낮에도 장보러 가기 무서워요"

CCTV 사각지대 많아 … 근본적 방범대책 세워야

광주의 한 대형할인매장 지하주차장에서 대낮에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납치·강도 사건이 발생해 여성 고객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광주일보 3월 18일자 6면>

20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임산부 조모(30)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께 광주시 북구 H대형할인매장 지하 2층 주차장에서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 남성에게 납치됐다.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진 채 끌려간 조씨는 30분간 납치·감금된 뒤 지하주차장에서 300m 떨어진 곳에서 현금 5만원과 금반지·금목걸이 등 95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긴 채 풀려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CC-TV(폐쇄회로)가 설치돼 있는 것을 확인한 뒤 화면분석에 나섰다. 하지만 납치 장면이 찍힌 결정적인 화면은 찾아 볼 수 없었다.

경찰은 주변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범행 전 2시간 동안, 지하주차장을 30분 간격으로 두 세 번 들락거린 카니발 승합차 한 대를 찾아냈다. 이어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CC-TV에서 승합차 운전자가 조씨의 뒤를 따라가는 장면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 검거에 나서 사건 발생 10일 만인 지난 17일 범인 정모(35)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20일 정씨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이곳을 이용하는 여성 고객들은 "밤도 아닌 한 낮에 쇼핑객들이 북적대는 곳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했는데, 불안해서 이곳을 이용할 수 있겠느냐?"라며 "할인매장 측에서 보다 근본적인 방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호소했다.

납치·강도 사건이 발생한 지하 2층 주차장에는 CC-TV(8대)가 설치돼 있고, 주차 요원이 배치돼 있으나 면적(주차 대수 100대 이상)이 워낙 넓어 사각지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시야가 가려 짧은 시간에 벌어지는 범행은 잘 포착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특히 퇴근 이후 시간대에는 고객 차량의 진출입이 많은데다 주차 요원도 분주히 움직이기 때문에 범행이 용이치 않지만 낮 시간대나 오전 시간대에는 보는 눈이 적을 뿐더러 줄어드는 고객 차량에 따른 직원들의 감시도 상대적으로 소홀해 그만큼 범행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게 보안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 때문에 한가한 시간대에 혼자서 생필품 쇼핑에 나선 주부들은 지하주차장에서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H대형할인매장 관계자는 "보안상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매장 곳곳에 150대 이상의 회전식·고정식 CC-TV가 설치돼 있고 보안요원들이 수시로 매장을 순찰하고 있다"며 "모든 자료는 당시 경찰에 넘겼다. 자세한 문의는 경찰을 통해 확인하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20일 광주방사능측정소 김재률 소장과 황혜현 연구원이 전남대 자연대 1호관 뒤편에 설치된 실시간 방사선 측정기 수치를 통해 방사능 오염 정도를 파악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日 원전 폭발로 비빠진 광주방사능측정소

5분 단위 방사선 감시 24시간 비상체제 돌입

"지난 2006년 북한의 첫 핵 실험 이후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20일 오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이하 KINS)산하 광주지방방사능측정소.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 자연과학대학 뒤편에 자리 잡은 이곳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 직후부터 24시간 비상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후쿠시마 원전 상황이 연일 악화 되면서 방사능 피폭 불안감이 우리나라까지 미쳤기 때문이다. 이날은 원전 폭발 이후 광주·전남지역에 처음으로 비가 내려 빗물에 포함된 방사능 수치 파악이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한 시점.

김재률 소장(62·전남대 물리학과 교수)과 황혜현(여·32) 연구원은 휴일도 잊은 채 오전 일찍 출근, 방사능측정소 바로 옆 잔디밭에 설치된 환경방사능 모니터링 시설을 찾았다. 실시간 모니터링 장치를 점검한 결과, 방사선 수치가 시간당 13.3μR(마이크로뢴트겐)으로 다행히 광주지역 연 평균(12.5~13.5)내 있었다.

이들은 이어 강수·낙진 채집장치와 공기 부유진 채집장치에 각각 들어있던 빗물과 필터용지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채취된 빗물은 바로 비커에 담겼고, 가열이 시작됐다. 필터용지는 전자레인지 모양을 한 실험용 오븐에 넣었다.

황 연구원은 "빗물과 필터용지를 오랜 시간 가열하고 나면 부유물만 남는다"며 "부유물을 다시 분석기인 감마 계측기에 넣으면 빗물속에 포함된 방사선 수치를 측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측정된 방사선 수치는 전산망을 통해 대전의 KINS 중앙측정소로 전송된다. 중앙측정소는 광주를 포함, 전국 12개 지방방사능측정소와 58개 간이측정소 등 총 70곳에서 보내진 자료를 모아 국내 방사능 오염도를 종합한다.

김 원장은 "후쿠시마 원전 폭발후 국내 방사능측정소는 방사선 자동감시망 감시주기를 15분에서 5분으로 단축했다"며 "현재까지는 광주·전남지역 방사선 수치에 이상이 없지만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변호사 사무실 압수 수색 법정관리 비리 수사 속도

'광주지법 법정관리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선재성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의 고교동창인 강모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일 광주지법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9일 강 변호사의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각종 수임사건 관련 자료와 컴퓨터 등을 압수했다. 법원이 강 변호사와 선 부장판사에 대한 영장을 발부한 지 하루 만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18일 검찰이 재청구한 강 변호사와 선 부장판사에 대한 영장 10여건 가운데 일부를 발부했다. 선 부장판사의 경우 강 변호사와의 통화내역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강 변호사 사무실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선 부장판사의 통화내역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법정관리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 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완도항 또 철부선 침몰…기름 유출

7개월만에 사고 재발

완도와 청산도를 오가는 정기 여객선(철부선) '교동 페리호'가 관리 소홀로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선체 일부가 침몰 됐다. 똑같은 사고가 지난해 8월 이후 7개월 만에 재발한 것이다.

20일 오전 6시께 완도군 완도읍 여객선터미널에서 99t급 정기여객선 교동 페리호(선장 김모씨·51)의 선체 후미가 바닷물에 잠겨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 완도해양경찰에 신고했다.

해경에 따르면 교동 페리호의 후미에 위치한 기관실이 물에 잠기면서 기름이 유출됐다. 또 여객선의 운항이 중단되면서 주민과 관광객들의 발길도 묶였다.

완도~청산도를 하루 평균 수차례 정기적으로 오가는 이 여객선(정원 76명)은 완도 청산농협에서 개인 소유의 여객선을 임대 운영하고 있다.

해경은 여객선과 선착장을 연결한 두께 40㎜의 로프가 썰물로 팽팽해지면서 끊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로프를 물때에 맞춰 느슨하게 묶어둬야 하는데, 팽팽하게 매어둔 상태에서 바닷물이 빠지면서 로프가 끊어졌다는 것이다.

현재 해경은 이날 방제정 등을 동원, 300m의 오일펜스를 설치하고 기름띠 제거작업에 나서는 등 긴급 방제작업을 벌였다.

한편, 교동 페리호는 지난해 8월 12일 새벽 4시30분께 완도군 완도읍 여객선터미널에서 뒷부분이 바닷물에 잠겨 기름 유출사고를 냈었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20일 오전 완도군 완도읍 여객선터미널. 완도~청산도를 오가는 교동 페리호의 선체 뒷부분이 바닷물에 잠겨 있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사업실패 목매고…부자갈등에 음독

광주·전남 2명 숨져

주말 광주·전남에서는 사업실패와 처지를 비관한 남성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잇따랐다.

19일 오후 6시30분께 양모(39)씨가 광주시 서구 화정동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목을 매 숨져있는 것을 아르바이트생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아르바이트생은 경찰에서 "출근 시간에 맞춰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사장님이 목을 맨 상태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양씨가 "수천만원대 채무와 영업난으로 최근 힘들어했다"는 주변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중이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5분 담양군 대전면 한 공원 옆 밭에서 이 마을에 사는 임모(77)씨가 극약을 마신 채 쓰러져 있는 것을 주민(71)이 발견, 경찰과 119에 신고하기도 했다. 임씨는 119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임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아들(45)이 제때 약을 챙겨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근 아들과 자주 말다툼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들 병간호에 따른 심적 갈등으로 고민해오다 임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여중 교사 학교서 성추행 논란

쌍나팔

○…광주지역 한 중학교 여학생의 부모가 자신의 딸이 교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의사를 밝히는 등 반발.

○…20일 광주의 한 중학교에 따르면 3학년 여학생(15)의 부모가 최근 학교를 방문해 지난해 11월 중순께 한 교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딸이 수치스러움에 학교에 등교하지 않으려 한다고 항의.

○…학교측은 "해당 교사가 명찰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의 가슴 쪽 교복 주머니에 손을 넣어 명찰을 꺼냈다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 같다. 학생지도에 문제는 없었다"고 해명.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농민회 "광주 RPC 비리 고발"

오늘 회견 뒤 검찰에 제출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는 20일 "광주지역 통합RPC(미곡처리장)의 업무상 횡령 등 비리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시농민회는 "지난해 10월 자체감사 결과 수억원대의 부정비리가 드러났다는 소문이 무성하더니 통합RPC 전 대표이자 공장장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죽음의 여파로 5억원이 넘는 쌀에 대한 책임 소재 및 과지급 퇴직금 등에 대한 책임소재가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은폐하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농민회는 21일 오전 11시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리 내용을 상세하게 밝힌 뒤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여고 정구팀 감독 공금횡령 등 사실로

시교육청, 승부조작 의혹 조사

'여고 정구팀 감독·코치 승부조작 등 의혹'<광주일보 2월 25일 6면>과 관련, 해당 감독과 코치가 공금을 횡령하고 선수들의 이적료를 가로챈 사실이 드러났다.

2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D여고 정구부에 대한 감사 결과, 감독과 코치가 2009년부터 2년 연속 전국체전에 출전하면서 유니폼과 라켓 등을 새로 구입했다고 서류를 꾸며 620여만원을 빼돌린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은 또 올해 실업팀에 입단한 선수 2명에게 지급된 이적료 2500만원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승부조작 의혹 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선배합격자가 말한다! 공무원 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7·9급 공무원 시험 [국가직 지방직] 최다 합격! 최강 퍼펙트 강좌!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학습증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려보십시오
7급 종합반 (이론) — 행정, 세무, 검찰, 교육행정, 교정직, 기술직 — 강의시간 : 09:00 – 18:00 (2개월 완성)
9급 종합반 (이론) — 행정, 세무, 검찰, 교육행정, 교정직, 사회복지, 농업직,기술직 — 강의시간 : 09:00 – 17:00 (2개월 완성), 매월 짝/홀수반 개강
9급 문제풀이 — 행정직/ 세무직/ 교육행정직/ 검찰직/ 교정직 — 강의시간 : 09:00 – 14:00 (4주 완성)
법원/ 검찰직 — 강의시간 : 09:00–19:20 (2개월 완성) — 노량진 유명강사진 총출강!
9급 야간반 — 강의시간 : 19:00–22:00 (3개월 완성) — 대학재학생, 직장인을 위한 공무원 합격 종합반
농업직/ 기술직 — 강의시간 :09:00–15:30 (2개월 완성) — 4년 연속 농업직 전국최다합격자 배출!
명품 "강력단과" — 영어, 국사, 행정학, 행정법, 국어, 헌법, 회계학, 경제학, 교육학 — 강의시간 : 15:30 – 18:30 (2개월 완성)
호남 유일 소방직 (전문) — 시험장과 동일, 체력측정기 도입 — 강의시간 : 09:00 – 17:00 (2개월 완성), 매월 짝/홀수반 개강
최다수강생 최다합격률 최고의시설 최강교수진
공무원 합격의 대세! 압도적 1위! www.hanbitgosi.co.kr
한빛고시학원
직영학원 김영편입학원 227-8088
전남대 북구청 앞 (062)252-0252
개강 매월 1일